

최민X 사건

개요

주택지하 임대차 계약자 **최민X**은

- 계약서 **재작성** 요구하다 뜬금없이 **엄마강간 살인자** 이야기 반복
- 연락두절후 인천(실제 4시간거리)에서 정승혜 **사기죄로 고소**
- 무혐의나자 **보증금(300만원의 배액)반환 민사소송**
- **2024 12월 현재** 인천에서 재판후 판결나자 다시 최민X 이 **이의제기** 하여 **재판앞둔 상태**
- **만 2년간 문제를 질질끄는 방식으로 정승혜의 삶에 해를 끼쳐 옴**
- 정승혜는 **최민x와 같은 문제**를 많게는 한번에 4-5개까지 지난 10년간 지속적으로 겪어오고 있음.

[10년간 범죄들 목차 링크예정](#)

타임라인

23년 3월 13일 정승혜가 성남에서 **최민X**과 임대차계약.

23년 3월 14일 오전 9시경 최민혁 계약서 재작성 요구하며 언어폭력으로 비정상적 태도로 돌변.

최민혁은 정승혜가 하는 모든 말을 막고 김인권 이라는 **엄마강간살인자** 이야기 반복. 요지는,

- 니가하는 모든말은 김인권이 시킨거지?
- 그가 옆에서 너를 촬영하고 있지?
- 그는 자기 엄마를 강간하고 살해한 살인자야.

신고후 출동 경찰에 녹취파일 들려드렸고 최민X에게 전화를 했는데받지 않음.

그날바로 경찰서 형사과로가 형사님들 앞에서 최민X에게 전화와 보증금을 돌려주겠다는 문자를 수십차례 보냈지만 응답하지 않음.

경찰서 형사과에서 나오는데 **계약 재개** 하기로 합의.

정승혜가 왜 김인권 이야기를 했냐고 물으니 최민X이 **다시는 안그려겠다고 함.**

[문자캡처 게시예정](#)

정승혜가 다시 왜 김인권 이야기를 했냐고 물으니 **최민X이 계약하지 않을테니** 바쁘니가 연락하지 말라고 함.

결국 최민X이 계약취소를 한 것이니 그가 자기 논리에 걸려들어 보증금을 못받는게 원칙이다.

23년 3월 15일 그 다음날도 **경찰서 형사과**로가 형사님들 앞에서 최민X에게 전화와 보증금을 돌려주겠다는 문자를 수십차례 보냈지만 응답하지 않음

23년 8월 일 최민X가 정승혜를 사기죄로 고소하여 정승혜 수사받음.

24년 인천에서 보증금반환 민사소송

24년 8월 인천에서 재판

24년 11월 이이제기로 다시 재판을 앞둬

그는 정승혜가 전혀 알지못하는 **엄마살인자 김인권**, 과거 상사 **이태희**, 자신이 당한 **과거 문제**등을 **고소장, 민서 소장, 항소장**에 무작위 거짓으로 작성하여 **문제 해결**이 불가하게 **만 2년간 문제를 질질끄는 방식으로 정승혜의 삶에 지속적인 해를 끼쳐 왔음.**

정승혜는 **최민x와 같은 문제**를 많게는 한번에 4-5개까지 지난 10년간 지속적으로 겪어오고 있음

정승혜는 무고죄로 최민X을 고소했지만 성남중원경찰서에서 인천서부경찰서로 이송되며 문제가 흐지부지 됨.

[관련자료 자세히 보기 링크연결 예정](#)

- 순차적 문자 영상
- 녹취파일
- 원본 저장 기기
- 사기죄고소
- 민사소송
- 이의제기